한우협회, 서울시와 '미스터리쇼퍼' 한우 둔갑판매 21개소 적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와 서울시는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해 불법판매 21개소를 적발했고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쇠고기 · 돼지고기의 미생물 검사도 1천여 개소를 실시, 권장기준을 초과한 102개소는 위생진단 컨설팅을 지원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미스터리쇼퍼는 '축산물유통감시 업무협약'으로, 재작년부터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 운영해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유통 식육의 위생 감시체계이다.

올해는 위반업소가 '18년 11월 기준 2.4%로 전년 동기간 3.8%보다 감소해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취약업소 미생물 컨설팅 및 위생지도 의뢰율은 9.8%로 지난해 11.6%보다 감소해 식육판매업소의 위생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 둔갑판매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한우협회와 서울시는 협치 ·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식육판매업소 컨설팅과 위생지도서비스를 지원하는 '예방적 위생감시체계'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향상할 계획이다.

한우자조금, 홍콩에서 연말 이벤트 '한우 크리스마스 파티' 진행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연말을 맞아 12월 15일까지 홍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말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12월 14일까지는 주홍콩 한국문화원과 연계해 문화원 내 한식 조리 강의실에서 '한우 쿠킹 클래스'를 열었다. 서울의 레스토랑 '도미' 김봉수 대표 셰프와 한국 축산물위생교육원 장영수 교수, 홍콩 현지 퓨전 한식당 '밥앤홈스'의 도영수 총괄 셰프가 강사로 참여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한우 요리를 선보였다.

12월 15일 토요일에는 한우와 한류 문화를 결합한 '한우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했다. 코즈웨이베이 '더 아티스트 하우스(The Artist House)'에서 열렸던 이번 파티는 한류에 관심이 많은 20~30대를 주 대상으로, 한우 요리 3종류를 비롯해 떡볶이, 잡채 등 총 30가지의 음식을 제공했다.

이 크리스마스 파티의 입장료 수익금 전액은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홍콩에서 한우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어 홍콩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며 "홍콩을 발판 삼아 앞으로 동남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돈협회, 창립 40주년 대화합 한마당…'비전' 선포식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12월 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한돈 40년, 미래 100년'이라는 주제로 한돈인 대화합 한마당 및 한돈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돈산업, 국민에게 사랑받는 한돈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역경 속에서도 명품 돼지를 길러 주신 한돈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한돈산업은 농촌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는 '2030 한돈산업 비전–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돈산업' 이라는 비전 아래 한돈자급률 80%, 국민 돼지고기 소비량 35kg, 한돈 관련 산업 생산액 30조원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돈인 협력(Collaborate), ▲국민 소통(Communicate), ▲함께 만드는 한돈산업(Co-Create)을 3대 핵심가치(3CO)로 두고 한돈산업의 가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돈자조금, 한돈몰 고객감사제 한돈 사고 에어프라이어 받자!

한돈자조금위원회(위원장 하태식)가 2018년 한 해 동안 한돈을 사랑해준 소비자 성원에 보답하고 다가온 황금돼지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한돈몰에서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돈자조금은 12월 21일까지 한돈몰에서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등으로 구성된 기획상품을 50% 할인된 금액에 판매했다.

특히 감사제 기간 중 기획상품을 구매한 회원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일 한 명에게 '에어프라이어 5L'를 증정했다. 또한 모든 구매자들은 증정상품으로 청정원 마늘 · 고추 분말을 받았고, 주문 시 무료 배송 혜택을 받았다.

하태식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한돈을 사랑해주신 소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황금돼지해를 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감사제를 마련했다"며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인만큼 한돈몰을 통한 이벤트를 더욱 풍성하게 마련할 예정"라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 우수목장 시상식 대상에 논산 대일목장 선정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18년도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 우수 목장 시상식을 12월 12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상(농식품부장관상)에 충남 논산의 대일목장(대표 정창영)을 비롯해 최우수상(농식품부장관상) 2개소,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1개소 등 총 14개소가 선정돼 상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선정 경과를 보고한 성경일 위원장은 "매일 목장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낙농가들의 노력들을 통해 국내 낙농 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해마다 깨끗한목장가꾸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목장주들의 부단한 성실함과 이를 추천한 도지회와 유업체 및 낙농 조합 관계자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 밝히며, 아울러 "지금처럼 각종 민원에 따른 분쟁이 다발하고 축산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운동 실천으로 타의 모범으로 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유자조금, 설문조사 결과 발표 '우유·유제품, 치아건강에 도움된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우유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우유와 치아 건강' 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평소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 올바른 칫솔질 및 정기적인 칫솔 교체(51.6%)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어서 차실 및 치간 칫솔 사용(21.4%),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 섭취(15.3%), 정기적인 치과 검진(9.8%), 금연 및 금주(1.8%) 순으로 답했다.

'우유 및 유제품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물음 또한 88.1%(1212명)가 동의했다.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한 질문에 우유와 유제품(1092명)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우유 및 유제품의 도움에 대한 구체적인 물음에 '우유 속 영양소가 치아를 튼튼하게 만든다'를 83.7%(1015명)가 선택했으며, 우유 속 영양소 중에서도 칼슘(92.2%), 인(33.8%), 단백질(32.7%), 유산균(18.5%) 순으로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답했다.

한편, 우유의 하루 권장 섭취량에 대해 약 60%의 응답자가 '2~3잔'이 적당한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우유를 자주 챙겨 마시는지 물었을 때, 과반수에 달하는 47.2%(650명)가 '일주일에 5일 이상' 우유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유를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약 100여 명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진행한 것으로, 총 국내 우유 소비자 1,376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양계협회, 산란일자표기 전면 거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집회 개최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12월 13일 오송 식약처 본관 앞에서 '산란일자,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를 진행한 (사)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식약처가 내년부터 난각의 산란일자표기와 더불어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를 시행을 하겠다는 게 결국 양계농가를 삶의 터전에서 내몰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미 수차례 산란일자표기의 부당성을 건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시 그 자체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날 밝힌 요구사항으로는 ▲난각 산란일자표시 전면 거부 ▲표시해야 한다면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되, 내년부터 시행될 '가금산물이력제' 내용 포함 계란 생산관련 전 내용 바코드 또는 QR코드로 표기 등을 요구했으며, ▲식용란선별포장업과 관련해선 시행 자체 거부가 아님을 밝히며 현재 충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단위 GP 센터 설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집회 당일 식약처로부터 어떠한 대답도 듣지 못했고 요구사항이 받아드려질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단협,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관련 정부 '안일행태' 비판

12월 3일 국회에서는 네덜란드 ·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을 위해 수입위생조건 체결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서 정부부처와 학계가 수입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언급하자 12월 7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 대변이 아닌 외국 국민과 외국 쇠고기를 옹호한 정부부처와 해당발언을 한 전문가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축단협에 따르면 EU와 교류하고 있는 영국에서 지난 10월 18일 3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영국이 EU회원국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국민의 위생안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장 해당국의 쇠고기 수입물량이 적다고 하나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베리코산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스페인산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초기(2013년) 6,444톤이었으나 2015년에는 44,625톤까지 증가해 국내 양돈산업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초기 수입물량이 적다며 무시만 할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축단협은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는 축산농가와 우리나라 국민을 대변 하기는 커녕 외국 국민과 외국 쇠고기만 옹호한 정부부처와 해당발언을 한 전문가에게 고개 숙여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더불어 수입위생조건 제정 시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청취하고 축산농가에 제시한 수입쇠고기 문제점을 적극 검토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동시에 촉구한다"고 역설했다.